

사회적 농업, 농업과 농촌의 탈영토화*

— 홍성군 장곡면 사례 —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01)

Social Farming as a Praxis to Deterritorialize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Case of Jangok-myeon, Hongseong-gun

Jeongseop Kim**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orea

Abstract

In South Korea, a few kinds of social farming practice are identified: care farming, labour integration, and training in farming sector. Although social farming is not a prevailing activity in rural communities, it attracts much attention from a range of actors in society. In Hongseong-gun, from a few years ago, two farms began to care and employ the mentally disabled and to train young newcomers who want to grow crops in the way of organic farming. Both of them are cooperatives, which were established by the residents want to participate in. These movement has made some changes in the community. And now, it became the well-known cases of social farming as well as multi-functional agriculture. Social farming can be described as a praxis to deterritorialize the uni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the rural community, where food empires imposed their ordering principle upon uni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in order to appropriate the value added by farming.

Key words: social farming, multi-functional agriculture, deterritorialization, rural community

1. 서론

경쟁력 코드는 지구적 수준에서 펼쳐지는 먹거리 제국(food empires)이 농업 생산, 농산물 유통, 농업 환경 자원(토지, 물 등) 관리, 농촌 지역사회 내의 제반 사회적 관계 등에 부여하고 구성한, 특히 한국에서 강력하게 작동하는, 질서의 표현이다. 가령, 농업생산의 전방과 후방에서 강화된 ‘이중의 쥐어짜기(double squeeze)’ 상황에서 어떤 농업 생산단위는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확대라는 경로를 찾아 나서는 한편, 다수의 농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농업 열화(劣化, deactivation)의 길을 밟도록 내몰리고 있다(Ploeg, 2008: 262-264). 경쟁 기제가 된 일부 농업 생산단위와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으로 구성된 양극 구조가 한국 농촌 지역사회에 고착될 기미를 보인다.

농업활동을 매개로 형성된 농촌 지역의 사회 자본(social capital)을 희생한 대가로 얻은(또는, 얻었다고 주장되는) 누군가의 경쟁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제적인 의미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 농산물에 반영된 물질적 가치를 먹거리 제국이 전유(專有)할 뿐이다. 그러나 “인간으로 하여금 노동을 하

주요어: 사회적 농업, 다기능 농업, 탈영토화, 농촌 지역사회

* 이 글은 2018년 5월 18일 열린 한국농촌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고친 것이다.

** 교신저자(김정섭) 전화: 010-7339-2546, e-mail: jskjks@krei.re.kr

게 만드는 유인이 ‘경제적’ 동기 하나뿐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칼 폴라니, 2015: 58)는 지적에서 보듯, 농민이 경제적 동기만을 쫓아서 농업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새로운 실천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먹거리 제국을 탈영토화하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사회적 농업이다.

사회적 농업 실천, 담론, 정책이 확산된 유럽에서는 “계약에 기초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가령, 지적·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의 노동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교육·돌봄을 촉진하거나, 아동이나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 영농 실천”(Iacovo, & O’Connor, 2009: 11)이라고 사회적 농업을 정의한다. 한국에서는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정의할 때 노동통합, 돌봄, 직업교육훈련 등 세 가지 실천 유형의 맥락을 식별할 수 있다’(김정섭 외, 2017: 8-9)는 의견이 제출된 바 있다. 결국 사회적 농업은 사회 통합(social inclusion)을 지향하는 농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농업 활동은 먹거리 상품을 생산해 화폐와 교환하려는 활동이므로 끊임없이 시장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식의 경쟁력 코드에서 벗어나는 탈주선을 바로 이 지점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맹아(萌芽) 상태인 사회적 농업 실천이 어떤 전망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먹거리 제국에 포획되어 본래의 사회적 차원을 잃어버린 농업 활동을 ‘탈코드화-재코드화’하는 실천으로서 사회적 농업을 조형하려고 한다.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배경을 이루는 논의들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 충청남도 홍성군 장곡면 일대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진행된 사회적 농업 실천을 개관하고, 그 특징 몇 가지를 포착해 분석할 것이다. 장곡면의 두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을 ‘탈영토화-재코드화’ 운동으로 묘사할 것이다. 셋째, 두 농장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는 농장의 ‘다른 무엇 되기’일 뿐만 아니라 농장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다른 무엇 되기’였음을 추가로 설명하려 한다. 끝으로, 논의를 종합하면서 한국에서 싹트기 시작한 사회적 농업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간략하게 정리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먹거리 제국과 사회적 농업

플루흐(Ploeg, 2008: 262-264)는 제국을 수없이 다양한 실체와 관계들 안에서 표현되는 질서화 원리(ordering principle)라고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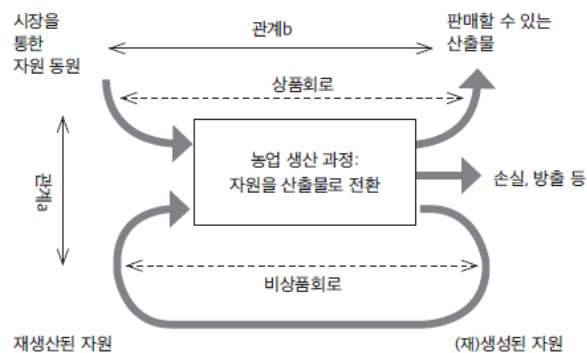
명한다. 현재, 세계를 재조직한 먹거리 제국은, 즉 먹거리와 관련된 질서화 원리의 연결망은 농민층에 특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한다. 첫째, 농민 영농양식(peasant mode of farming)이 바탕을 둔 자원 기반을 크게 왜곡시키고 있다. 둘째, 농업 부문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 중 상당부분이 먹거리 제국의 착취 과정에 종속되면서 불안정성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셋째, 토지, 유전자원, 물, 판로 등의 중요 자원을 먹거리 제국이 전유함으로써 특정한 상품만을 생산케 하는 새로운 경로를 만들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국지적인 연결망에 결합되어 있던 수많은 농민 생산자에게 사실상 잉여(redundancy)라는 선고를 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전 세계의 농업 생산단위를 지배하는 질서화 원리, 즉 먹거리 제국은 농업 생산의 결과로 나온 가치를 전유할 수 있게끔 농산물을 생산하고 전달하는 기계로서 농장이 작동하게 만드는 배치다. 한국에서 농지를 그리고 농업 노동의 주체를 영토화하는 먹거리 제국은 농장 내부에서 유기물, 무기물, 농업 노동력 등의 흐름을 분절해 그 각각을 상품화(commoditization)하고 산출되는 가치를 전유한다. 계열화된 양계 부문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시설 종계, 사료, 의약품 등 투입 요소 대부분을 시장에서 구매하고 산출물도 시장에 판매하는 구조에서 자원의 흐름 중 농장 내부에서 순환되는 부분의 비중은 극히 낮다. 이는 농민으로 하여금 농산물을 자율적으로 생산하고 처분(판매, 자가 소비 등)하는 자율적 주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배치다. 이 같은 배치는 ‘사육수수료’라는 용어를 탄생시켰는데, 먹거리 제국의 코드를 전형적으로 표상한다. “하림은 계약 농가에 사육 수수료를 단순히 내주지 않는다. 하림이 도입한 계약농가에 대한 ‘상대평가’ 제도가 대표적이다. 사료를 되도록 ‘덜’ 먹이고, ‘덜’ 죽이고 닭을 키워내면 그 농가가 1등을 차지하고, 나머지 농가는 페널티를 받는 제도가 상대평가다. 농가들끼리의 협력이 아닌 경쟁을 부추기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는 고스란히 본사가 가져가는 독한 제도다. 물론 이 제도는 미국의 스미스필드와 같은 거대한 축산기업으로부터 배워온 것이다.”(정은정, 2014: 268).

<그림 1>은 농업 생산단위의 영농활동을 일종의 자원 전환 과정으로 파악해 추상화한 것이다. 플루흐(2013: 58)는 농민 농업(peasant farming)과는 달리 기업형 농업(corporate farming)이나 경영자형 농업(entrepreneurial farming)이 먹거리 제국의 질서화 원리를 따르는 과정을 농업 생산단위의 자율성 상실 과정이라고 이해한다. 이는 농장에서 내부 및 외부 자원 흐름의 배치를 바꿈으로써 가능해지는데, 그 결과는 농업 활동이 시장에 의해 질서화되며 시장논리를 따르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농업 생산단

위들이 점점 더 시장논리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은 광범위한 산업 관계, 거래 관계, 금융 관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압박받게 되었음을 뜻한다. 상류의 시장에서는 투입재 가격이 상승하고 하류의 시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시장은 점점 더 세계 시장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먹거리 생산, 가공, 유통, 소비에 관한 통제력을 점점 더 강화하는 확장된 연결망으로서 먹거리 제국이 현존하고 작동한다는 사실은, 지구적 수준에서 동일한 표준, 모수(parameter), 절차가 적용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식의 배치(agencement)는 농업 생산단위가 시장에 종속된 먹거리 상품 공급 단위로서만 기능하게 할 뿐이다. 농촌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행위자로서 담당해야 할 사회적 역할은 더 이상 부여되지 않는다. 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2001)에 따르면, 배치란 여러 종류의 기계장치가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 배치는 기계를 성립시킨다. 배치는 힘의 흐름, 그 흐름에 부과된 코드 그리고 영토성과 관련된다. 물론, 배치는 가변적이다. 탈영토화와 탈코드화의 양상에 따라 배치는 하나의 고정된 기계이기를 멈추고 분해되어 다른 기계로 변형된다. 사람의 입을 포함한 배치의 양상에 따라 입은 ‘먹는 기계’가 될 수도, ‘말하는 기계’가 될 수도 있다.¹⁾



(그림 1) 영농 과정에서 자원 흐름

자료: Ploeg, J. D. van der, (2013). Peasants and the art of farming: A Chayanovian Manifesto, Canada: Fernwood Publishing, p.58.

왼쪽 윗단의 흐름(필요 자원의 구입)이 왼쪽 아랫단의 흐름(필요 자원의 자급)을 압도하는 순간 상품관계가 영농 과정의 핵을 관통하게 된다. 이로써 농장이 (특히 흐름의 상류 부분에서) 시장에 의존적이게 된다.

그리고 농장은 경영자형 경영체로 구조화된다. 그런데 자원을 획득할 때 아랫단의 흐름이 우세하면, 농민 농업으로 구조화되는 상대적 자율성과 영농 경향이 존재하게 된다. 농민 농업에서 시장은 우선 (하류 측면에서) 방출구이지만 경영자형 농업 및 기업형 농업은 본질적으로 시장에 의해 질서화되며 시장 논리를 따라야 한다.

Ploeg, J. D. van der, (2013). Peasants and the art of farming: A Chayanovian Manifesto, Canada: Fernwood Publishing, p.58.

먹거리 제국이 농업 생산단위의 거동 전체를 시장 논리에 따라 배치한 결과, 농업 활동은 사회적 가치와는 무관한 활동이 되었다. 기계화, 신기술, 화학 투입재 사용 증가, 전문화, 정부 정책 등으로 인해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전문화, 환경에 대한 압력 증가, 공적 영역 잠식”(Wiskerke, & Ploeg, 2004) 등을 초래했다. 한국의 맥락에는 농촌 지역사회의 공적 영역 잠식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경영자형 영농양식이 확산됨과 동시에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에 대한 농촌 지역사회의 집합적 대응 능력이 약화되고 있다. ‘사회적 배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두고 수없이 많은 변주와 논의가 있지만, 각각의 주장들에서 발견되는 미세한 차이점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부카르트 외(Burchardt et al., 1999: 229)는 “(1)한 개인이 사회 속에 지리적으로 거주하고 있지만, (2)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그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통상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3)그렇게 참여할 의지도 없을 때, 그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정의한다. 배리(Barry, 2002: 16)는 “개인이나 집단이 참여하려는 바람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지와 관계없이 참여 기회를 부정당했을 때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고 정의한다. 석스미스와 채프먼(Shucksmith, & Chapman, 1998: 230)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특정한 이들이 자원(또는 가치 분 소득)이 부족해 다수 구성원이 누리는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공유할 수 없는 무력함을 ‘빈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빈곤은 일종의 결과물이다. 사회적 배제란 다차원적이고 역동적인 개념으로, 개인이나 가구의 사회적 통합을 보장해야 할 사회 내 주요 체계의 붕괴 또는 기능 장애를 말한다. 이는 ‘희생자뿐만 아니라 ‘체계의 실패(system failure)’에도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서는 석스미스와 채프먼(Shucksmith, & Chapman,

1) “어떤 사회적 장이 유기체들을 이용하기 위해 포착하고 관통하려면 배치물이 필요하다. 아마존 죽 전사들이 젓가슴을 잘라내면 안 될 이유라도 있는가? 유기체 지층을 전쟁 기술 지층에 맞추려고, 즉 여자-활-스텝이라는 무시무시한 배치물의 요구에 따르려고 가슴을 자르는 것이다.”(질 들뢰즈·펠릭스 가타리, 2001: 140).

1998: 230)의 견해를 따른다.

지금은 대규모 전업농 10%와 나머지 90%를 통으로 겸업농으로 묶어 농업정책 대상으로 삼습니다. 중간의 1종 겸업농은 결과적으로 탈락되고, 취미 수준의 농업 까지도 농업정책 대상이 됩니다. 이런 정책은 농업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는 어쩔 수 없이 대농들이 농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흥동면 금평리와 문당리 앞 들판에서 200농가 정도가 농사짓습니다. 150만 평쯤 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각 5명 정도로 구성된 두세 팀이면 이 농사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 (중략) ... 그 친구들은 축사를 크게 유지하면서 '경축순환농업을 한다'고 말합니다. 소 200~300두를 사육합니다. 저는 이 동네에서조차 그런 식으로 농업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농촌은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1억 이상 벌 것 아니면 하지 말아야죠."라고 말하는 젊은 대농들은 흥성읍이나 내포신도시의 아파트에 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 농촌 마을은 깨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농촌에 살면서 지역사회 활동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농촌 지역의 다양한 활동을 누가 해야 합니까?

자료: 김정섭, 정민철, & 황수철. (2018). 대담: 농촌의 지속가능성, 미래의 농민, 도전해야 할 과제. 마을: 마을, 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통권(2), 73-105, pp. 82-83.

먹거리 제국이라는 배치가 기업형 영농양식과 경영자형 영농양식으로 표현된다면, 그 대항은 농민 영농양식으로 표현된다. 플루흐(Ploeg, 2008: 113-122)는 경영자형 영농양식과 농민 영농양식을 '인위화 대 살아있는 자연과의 공동생산', '시장 의존성으로의 진입 대 자율성을 위한 투쟁', '경영 마인드 대 장인 정신', '규모 확대 대 노동-주도형 집약화', '전문화 대 다기능성', '역사적 단절 대 연속성' 등으로 대별한 바 있다. 경영자형 영농양식과 비교할 때 농민 영농양식은 여러 차원에서 대조된다. '전문화(specialization) 대(對) 다기능성(multifunctionality)'이라는 구도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본다.

경영자형 영농양식은 전문화를 이루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적·공간적 노동 분업을 통해 형성된 복잡한 연결망 안에 포획되었고 농장을 하나의 단순한 처리과정을 반복하는 기계로 환원시키기에 이르렀다.

농민 영농양식에서는 오랫동안 복합영농이나 다중경제활동 등의 기제를 통해 자원을 다각적으로 활용했는데, 전문가 체계(expert system)는 그런 것들을 농민 농장의 내재적 '후진성'으로 폄하했다. ... (중략) ... 그런데 1990년대 초반 이후 심사숙고하여 창출한 새로운 형태의 다기능(가령, 농업관광, 자연·경관·생물 다양성에 대한 농업적 관리, 에너지 행산, 고품질 생산품 및 지역 특산물 생산·가공·마케팅, 장애인 돌봄, 수자원 보호 등) 농업 실천 경향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료: Ploeg, J. D. van der. (2018). The new peasantries: Rural development in times of globalization, London: Earthscan, p.121.

달리 말하자면, 다기능 농업은 경영자형 영농양식이라는 먹거리 제국의 배치로부터 탈주하는 운동인데 사회적 농업도 그 범주에 속한다.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사회/보건 돌봄(community-based social/health care)이라는 두 개념 안에 자리 잡은 혁신적 접근 방법이다. 농촌 지역에서 사회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촉진하려고 동식물을 포함한 다양한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모든 활동들이 사회적 농업 범주에 포함된다. 재활, 치료, 보호작업장, 평생교육,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여타의 활동 등이 사회적 농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된다."(Hassink, 2008: 21). 이러한 탈주는 탈영토화-재코드화를 수반한다. 먹거리 제국의 배치 밑단에서 영토화되었던 농장을 탈영토화하는 셈이며, '경쟁력' 코드를 '사회 통합'으로 재코드화하는 실천이다.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F. Guattari)의 용법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구조나 체계를 영토(territory)라고 한다(들뢰즈·가타리, 2001). 탈영토화는 기존의 구조나 체계를 벗어나는 것이며, 재영토화(reterritorialization)는 그런 벗어남이 새로운 구조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탈영토화와 재영토화라는 개념 쌍은 탈코드화(decoding)와 재코드화(recoding)이라는 개념 쌍에 조응한다. 코드는 규약 혹은 규칙을 의미한다. 코드가 신체에 포획되고 고착되어 변함없는 질서로서 욕망의 흐름을 통제하는데, 이를 코드화(encoding)라고 한다. 한편, 기존의 코드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은 탈코드화라고 한다. 코드화 그리고 영토화는 생산적 욕망의 흐름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과정을 뜻한다. 탈코드화 그리고 탈영토화는 억압과 통제를 벗어나 탈주하려는 흐름을 의미한다.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활동이고, 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장소'라는 인식은 옳지만 불충분하다. 그런 인식만으로는 사회

적 농업이나 다기능 농업에 관한 논의에 바짝 접근하기 어렵다. 농업 생산단위가 농업 활동을 펼치는 동시에 ‘다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상상력 없이 탈영토화는 불가능하다. 농장이 농장이면서 돌봄의 장소가 되거나 교육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사회적 농업의 상상은, 농산물 생산의 지층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지층을 동시에 관통하는 배치가 가능하다는 상상에 다름 아니다.

3. 연구 방법

장곡면은 충남 홍성군 홍동면에 이웃한 지역이다. 장곡면 도산리에 있는 홍동저수지가 한국 유기농업의 기원을 이루는 홍동면 일대 논농업의 관계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 이유로 2000년대 초중반부터 홍동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던 농민들 중 일부가 상류 지역인 장곡면에서도 유기농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주하여 농지를 확보하고 유기농업을 확산시켰다. 홍동면과 장곡면은 지역사회 발전을 지향하는 여러 조직들이 활발하게 출현하는 농촌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다.

이 글에서 분석하는 사회적 농업은 홍동저수지가 바로 옆에 있는 장곡면 도산2리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홍동면과 장곡면, 두 농촌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39개의 지역사회 조직에 관한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 조직이 어떤 필요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 형식과 활동 내용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2017년의 조사는 사회적 농업에만 초점을 둔 것이 아니었다.²⁾

그리고 2018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도산2리에 체류하면서 2017년 면담 조사에서 드러난 조직 가운데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조직을 집중적으로 참여 관찰하였다. 참여관찰(participatory observation)은 질적 조사연구(qualitative research)에서 전형적으로 쓰이는 자료 수집 방법 중 하나다. 조사대상이 되는 사회 집단과 조사자가 긴밀한 의사소통 관계에 놓인 상태에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보고 들은 내용을 자료화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는 몇 가지 기법이 제안되어 있는데, 비형식 면담 조사(informal interview), 직접 관찰(direct observation), 집단 생활에의 참여, 집합적 토론(collective discussion), 집단 내에서 생산된 개인 자료 분석, 자기 분석(self-analysis), 생애사 자료(life-history document) 분석 등이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참여관찰 기법은 집단생활 참여, 비형

식 면담 조사, 직접 관찰, 집합적 토론이다. 체류기간 동안 장곡면 도산리의 젊은협업농장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출근하면서 젊은협업농장, 행복농장, 두 농장이 입지한 도산리의 주민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대화하고 농장들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에 참여하는 가운데 자료를 수집하였다. 2017년의 면담 조사 자료 가운데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에 관한 내용, 그리고 2018년의 참여관찰에서 수집한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4. 연구 결과: 농업 생산단위의 재코드화와 지역사회의 변화

4.1. 젊은협업농장, ‘교육농장-되기’³⁾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에 있는 젊은협업농장은 주로 유기농 쌈채소를 생산한다. 비닐하우스 8동에서 10여 종류의 쌈채소를 재배한다. 협동조합 법인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되었는데, 설립 초기부터 사회적 농업을 지향했다. 그 지향점이 젊은협업농장의 웹페이지에 언명되어 있다. 젊은협업농장을 소개하는 아래의 인용문에서 열쇳말은 ‘교육’, ‘교류’, ‘함께 살아가는 농촌’이다. 얼핏 보기에 평범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목적에서 유기농 쌈채소를 재배하는 다른 농장의 웹페이지에 나오는 소개 글과 비교하면, 사회적 농업의 지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농촌을 사랑하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일합니다. 귀농을 꿈꿨던 사람들이 힘을 모아 2011년 홍성군 장곡면에 모여 농사를 시작하였습니다. 3인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10인 내외의 다양한 사람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유기농 쌈채소를 중심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합니다.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퇴비와 유기농 자재를 사용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종류의 쌈채소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교류를 통해 지역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신규 농업인에게는 유기농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지역 농업 인과는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고자 합니다.**

2) 그 조사 내용과 분석 결과는 김정섭 외 (2017)을 참고.

3) 젊은협업농장에 관한 개괄적 정보는 김정섭 외(2017: 72-75)를 참고.

자료: 젊은협업농장 홈페이지(<http://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2018년 5월 15일,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매출’, ‘공급’, ‘마케팅’ 등의 단어와는 달리 ‘교육’, ‘교류’, ‘농촌’, ‘함께 살아가는’ 등의 지향을 선언한 것만으로 젊은협업농장이 사회적 농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 같은 목적 지향에 걸맞게 농장 구성 요소들을 배치하고 농장을 조직하는 원리를 바꾸는 재코드화가 이루어져야 사회적 농장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회적 농장으로서 젊은협업농장은 조직 형식, 구성원의 농장 내부 활동, 구성원의 농장 외부 활동, 농장의 재구조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자연과 흙이 좋아 귀농을 선택한 젊은 농부입니다. 안녕하세요. ○○ 농장지기입니다. 도시 생활을 하다가 자연과 흙이 좋아 귀농을 선택한 젊은 농부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안겨준 ***평의 축복 받은 땅에서 우리 밥상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쌈채소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쌈채소 재배를 전문으로 하는 귀농 *년차로 상추, 적겨자, 샐러리 등을 연중 출하하고 있고 체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정착지역, 경제사정, 작물 등 많은 선택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2년간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년여 동안 생산기술은 물론이고 마케팅, E-비즈니스 등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감을 가지고 귀농하여 처음에는 고구마 모종을 키워 인터넷으로만 판매했는데 안정적인 매출이 기록되자 확산을 했습니다. 귀농을 꿈꾸는 많은 분들이 철저한 준비, 공부, 농진청의 E-비즈니스 라닝과 같은 인터넷 마케팅 교육을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다면 농촌에도 웃는 농업인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신선하고 안정적인 쌈채소 공급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인터넷 포털 사이트 키워드 검색 광고에서 찾은 ○○농장 소개 글, 2018년 5월 15일, 굵은 글씨는 필자의 강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는 밝히지 않는다.

첫째, 젊은협업농장이 협동조합법인이라는 조직 형식을 취한 데에는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역사회의 공적 의제(agenda)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다. 젊은협업농장이 제안한 목표는 ‘지역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기르자’는 사회적인 목표였다. 농업 생산단위의 조직 형식이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그 단위가 사회적 농장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가령, 농업 생산자 10명이 출자해 농산

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판매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더라도 그 목적이 온전히 조합원 10명의 경제적 이익에만 있는 것이라면, 그 협동조합을 사회적 농장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 젊은협업농장은 45명의 조합원이 출자한 협동조합이지만, 조합원 대부분은 농장의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농장의 생산 활동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이들이 출자 조합원의 대부분이라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들은 조합원이지만 이용고 배당을 받지 않는다. 아니, 처음부터 이용고 배당은 없는 것으로 결의하였다. 이 조합원들은 경제적 이익 동기가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 젊은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사회적 목적에 동의하여 후원한 셈이다. 협동조합을 대표하는 이사진은 이웃한 흥동면에 있는 풀무고 등농업기술학교 이사장,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협업농장이 소재한 도산2리 이장과 젊은협업농장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생산조합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이 많아지거나 능률이 올라가더라도 그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분화해나가는 방식으로 그리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지역활동이나 개인활동 시간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간다. 농업생산을 중심으로 하지만 이를 통해 지역, 농업 교육 분야를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농업을 둘러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새로운 단체를 인큐베이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중략) ... 협동조합은 직원을 두지 않고 조합원의 조합활동으로 운영하며, 이용고, 출자금에 의한 배당은 없고 생산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운영비를 제외한 이익금을 동등하게 배분한다. ... (중략) ... 조합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중이해당사자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한다. 총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정보의 전달 방법을 취하고, 생산활동참여조합원 중심으로 조합운영의 방향을 결정해 나간다. 이사회는 협업농장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여 기본적인 철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민철(2014).

자료: 젊은협업농장 홈페이지(<http://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2018년 5월 15일.

둘째, 젊은협업농장 구성원의 농장 활동은 법인의 농업 조수 입이나 순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맞추어지지 않는다. 경제활동 단위로서 농장의 생산은 일정 수준 이루어지지만, ‘교육’과 ‘교

류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어렵게 될 만큼 노동을 투입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실천은 농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하루 일과 구성에서 잘 드러난다. 봄철 기준으로 오전 6시 30분부터 농작업에 참여하고 오후 4시 전후에 농작업이 끝난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는 실내에서 진행되는 강좌에 참여한다. 이 강좌를 ‘평민마을학교’라는 이름으로 매 요일마다 각각의 강사가 진행한다. 이 강좌는 젊은협업농장 구성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으며, 모든 강좌를 젊은협업농장이 소재한 곳에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장곡면 그리고 이웃한 흥동면의 주민들이 수강하는 강좌도 있다. 2018년 5월 7일 기준으로 강좌는 ‘동서양문명사’, ‘유기농업’, ‘글쓰기’, ‘기초화학’, ‘협동조합론’ 등 7개의 강좌가 매주 1회 진행된다. 농사일은 오히려 제한된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평민마을학교’ 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포스터의 문구에서 젊은협업농장이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원래 교육의 본질은 개인의 성장을 돕는 ‘교육’ 助育이면서 다양한 개인들로 구성되는 이웃공동체의 관계와 테두리를 깊고 건강하게 넓혀가는 ‘공육’ 共育입니다. 시대의 소리에 응답하는, ‘이촌위교’ 以村爲校 (마을이 학교가 된다)의 평민지역학교는 교육의 장소를 온 마을에 열고, 모든 주민이 일과 생활의 필요에 따라 평생 종교, 사상, 생태, 농업, 복지, 지역, 문화 등 넓은 범위를 서로 공부하면서, 평생 배우고 일하고 협력하는 지역, 돈과 경쟁이 아닌 휴과 공동체의 가치를 한걸음씩 구체화시키는 지역을 평민들이 아래로부터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자료: ‘평민마을학교’ 강좌 안내 포스터.

물론, 젊은협업농장의 학습이 ‘평민마을학교’의 강좌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상의 농작업 시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습의 시간일 터이다. 다만 농사일을 배우는 것은 공식화되지 않은, 그리고 교수자가 없거나 그 역할이 크지 않은 경험학습(experiential learning)⁴⁾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년들이 주어진 과업(농작업 및 그 연장선상의 일)을 수행하다가 마주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답이나 해결의 단서를 얻는 대화의 형식으로 학습이 진행된다. 이 같은 교육 및 학습이 젊은협업농장

의 핵심 기능이다. 농업에 관심을 둔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농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까지 돕는 ‘비밀 언덕’이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협업농장을 농업 경영이나 영농에 관한 기술을 전달하는 일종의 농업교육기관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단순히 기술만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는 현재 한국 농촌에서 농업에 진입하려는 청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4대 난점’이라고 다음과 같이 요약한 바 있다(김정섭, 2016). 첫째, 농사일이 버릇처럼 몸에 배도록 익혀야 하고, 둘째, 농촌의 사회적 관계망에 편입되어야 하며, 셋째, 농촌에 진입하는 초기 생활비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현금 소득이 있어야 하며, 넷째, 농지 등의 영농기반을 갖추어야 한다. 충분치는 않겠지만, 젊은협업농장은 앞에 열거한 네 종류의 과제 가운데 마지막 것을 제외한 세 가지 모두에 도전하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농사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젊은협업농장 및 그 구성원이 지역사회 안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매개로 경제적 자본이 부족한 청년 신규취농자에게 자원 동원의 경로로 기능할 사회 자본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 가운데 하나가 ‘지역 농업인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농촌 만들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만큼 젊은협업농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한다. 쓰레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농가들에서 쓰레기를 모으고 분류해서 배출하는 일상적인 일에서부터 시작해, 지역사회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활동 조직을 만들어내는 지역사회 조직가(community organizer)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여러 종류의 활동을 수행한다. 한 조직만의 힘으로 치러내기 어려운 큰 규모의 도농 교류 행사 따위를 여러 조직과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참여한다.

넷째, 재무구조와 운영 방침에서도 중요한 특징이 드러난다. 젊은협업농장은 시장(상품교환체제)에서 화폐를 획득하는 것을 압도적 우위를 지닌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 농장의 가장 중요한 운영 목적이 ‘사람을 키우는 일’이므로, 농장의 농업 생산성은 다른 각도에서 조명된다. 농업 생산성은 극대화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균형점을 찾아 유지해야 할 지표가 된다. 2017년 젊은협업농장의 법인 총수입은 1억 4,122만 원이었다. 지출은 1억 4,381만 원으로 경미한 수준의 적자를 보였다. 사업 확장 전략이 없는 한 불필요한 잉여를 남길 이유가 없는 협동조합 회계 원리로서는 수익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 듯하다. 그러나 ‘사회

4) 말 그대로 경험을 통해 학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확하게는 “행함에 대한 성찰을 통한 학습”이라고 정의된다. 경험학습은 단순작업을 반복하는 숙련 학습의 경우처럼 수동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는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를 전제로 한다. 경험학습에 관한 기본적인 안내로는 Beard(2010)을 참고.

적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농업 생산단위라 하더라도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일정한 수준의 농업 조수입을 유지해야 하는 바, 어느 수준에서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총수입 가운데 농산물을 판매해 얻은 농업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67.6%였고,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행에 따른 대가와 민간 공익재단 및 공공기관의 지원금의 합계가 28.3%였다. 그리고 차입금이 2.8%를 차지한다. 농업 조수입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는 쌈채소를 비닐하우스 8동에서 생산하는데, 비닐하우스 1동에서 평균 1,193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셈이다. 동일 면적 동일 사양의 비닐하우스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해도, 영농 스타일(farming style)에 따라 생산량에는 차이가 많을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젊은협업농장이 속한 지역에서 시설 쌈채소는 비닐하우스 1동당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수준보다 생산성이 적지 않게 떨어지는 셈이다.⁵⁾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는 생산자의 절반 이상이 경력 1년이 되지 않은, 일종의 ‘교육생’이라는 점과 오후 4시 이후에는 농작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같은 생산성의 상대적 저위를 이해할 수 있다. 요점은 ‘생산성 저위’ 상황이 강제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은 자발적 선택의 결과였다는 점이다. 생산성 극대화는 ‘경쟁력 코드’의 일종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농업노동시간과 학습시간의 균형’이라는 원칙으로 재코드화한 셈이다.

4.2. 행복농장, ‘돌봄농장-되기’⁶⁾

젊은협업농장에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행복농장은 주로 유기농 허브, 꽃모종 따위의 원예작물을 수확 중 생산한다. 비닐하우스 4동의 작은 농장이다. 젊은협업농장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법인 형식으로 조직한 농장이다.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지역사회에 농업 활동을 매개로 삼아 통합(inclusion)시킨다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한다. 근년에는 주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녹색돌봄(green care) 프로그램과 재활-고용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색 돌봄을 다양하게 실험했던 2016년에는 만성 정신질환자만을 대상으로 프

로그램을 진행했던 것은 아니다. 노숙인, 알콜중독자, 미혼모,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닌 전문 직종 종사자 등 여러 집단을 대상으로 농작업이 포함된 돌봄 프로그램을 시도했다. 행복농장 또한 기본 목적을 사회적 배제에 대한 대응에 두는 만큼 먹거리 제국에 종속된 일반적인 원예 농장으로부터 탈주하여 재코드화된 배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 특징이 조직 형식, 농장 내부 활동, 재무 구조 측면에서 드러난다.

첫째, 조직 형식을 살펴본다. 행복농장에는 2018년 현재 14명의 조합원이 있다. 이사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행복농장에서 일하는 생산자 이사는 1명이다. 조합원 중에는 법인 조합원이 1명 있는데, 젊은협업농장이다. 이사장은 설립 당시 아이디어를 제안했던 의사 안○○ 씨다. 행복농장 설립 시기에 충남정신건강증진센터의 센터장을 맡았고, 지금은 개인 정신병원을 운영한다. 조합원 구성을 젊은협업농장과 마찬가지로 외부에 열어 놓은 까닭은 행복농장 또한 ‘돌봄’과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행복농장이 2013년에 설립될 때 농장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 씨가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업과 지역을 배운 청년이라는 점에서, 녹색돌봄을 구상했던 당시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 측이 농장 설립을 처음 제안하고 의논했던 상대방이 젊은협업농장이었다는 점에서, 조직 형식이 젊은협업농장과 유사하게 된 사정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을 돌보고, 몸을 돌보고, 세상과의 관계를 돌보는 농장입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사람을 돌보고 치유하고 키우는 따뜻한 확장이 시작되는 터전입니다. 행복농장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이라는 농장의 원천적 기능과 함께 농업이 가지고 있던 돌봄과 성장의 역할을 사람과 함께 지역과 함께 복원하고 펼쳐 나가려 합니다.

자료: 행복농장 홈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둘째, 행복농장의 내부 활동은 원예작물을 생산한다는 기본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돌봄과 재활이라는 목적에 맞추어 조직된다. 가장 눈에 띄는 활동은 녹색돌봄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행했는데, 첫해에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을 실행했다. 하나는 ‘행복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미혼

5) 국가승인통계로 보고되는 농촌진흥청의 『2016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따르면, 시설상추의 10a당(약 300평) 총수입은 전국 평균 약 933만 원이다. 통상적인 비닐하우스 1동이 200~250평 크기라는 점을 고려하고, 젊은협업농장에서 생산하는 쌈채소가 상추 외에 다른 품목들이 다채롭게 편성되어 있고 유기농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비교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의 통계치보다는 월등히 생산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에서 시설상추 등의 총수입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된 것일 수 있다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생산성 비교의 준거를 통계치에 두지 않고, 이웃한 농가들의 통설에 맞추는 게 적절하다. 젊은협업농장의 실무책임자인 상임이사 정민철은 총수입만을 놓고 보았을 때,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비닐하우스 1동에서 1,500만 원의 농업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가정한다.

6) 행복농장에 관한 개괄적 정보는 김정섭 외(2017: 67-72)를 참고.

모, 탈북가정의 자녀, 청소년, 노숙자, 자살 유가족 등 다양한 대상의 심리적 치유와 자립을 위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과 목공 및 요리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자연구시 프로그램'인데 복지관이나 요양시설 등에 소속된 만성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게 하고 재활 및 자립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2016년의 경험을 토대로 '행복 체험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2017년부터는 '자연구시 프로그램'만 실행하고 있다. 행복농장이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공고하게 다지는 일이 급선무라는 판단이 있었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몇 개의 단계별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4박5일 간 진행되는 '일반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행복농장에서 제공하는 돌봄 농업 활동의 기초다. 한 해 동안 1~3회 진행하는데, 매회 7~12명이 참여한다.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에서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기간 중 오전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오전과 오후에 각각 2시간씩 농장의 농업활동에 참여한다. 저녁 시간에는 충남정신건강센터에서 면담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희망자 4명을 선정해 2주~3주에 걸친 '자연구시 심화과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농업활동이 심화과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정신건강 측면의 전문적 프로그램 비중은 줄어든다. 행복농장은 2016년에 심화과정을 거친 사람들 가운데 3명을 고용하였다. 둘 중에 한 명은 인턴 자격으로 일하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인턴 급여를 지원한다. 말하자면, 3명의 사회적 약자가 직업재활

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2018년 현재 장애인고용공단의 인턴 급여 지원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행복농장은 3명의 참여자 가운데 1명을 고용한 상태다. 다른 1명은 행복농장이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이 강당 등 물리적 인프라 이용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오누리권역친환경마을협동조합'이 고용한 상태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때에 농작업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상품생산 활동'에서 '상품생산 활동인 동시에 사회재활 탐색 활동'으로 재코드화된다.

셋째, 행복농장도 젊은협업농장과 비슷하게 농업 생산과 돌봄/재활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다. 이 또한 '생산성 극대화'라는 경쟁력 코드에 맞춰진 농업 현장을 탈영토화하고 '사회 통합'으로 재코드화하는 시도이다. 비닐하우스 4동이 전부인 행복농장의 규모에서,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최적의 노동력 투입 규모는 2명 정도이다.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부부 가족 노동력 2인으로 꾸려갈 수 있는 규모다. 그런데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프로그램 참가자 2명에 농장 일꾼 1명이 곁붙어 보살펴야하기 때문이다. 현재 요양시설에서 나와 주택을 얻어 거주하며 행복농장으로 출퇴근하는 이의 노동생산성도 숙련된 농업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행복농장의 기본 목적인 '사회 통합'을 계속 지향하는 한 농업 조수입의 감소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농업생산성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균형의 문제가 남아 있다.

〈표 1〉 행복농장의 2016년 자연구시 프로그램 개요

자연구시 프로그램: 복지관 또는 기관에 소속된 만성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한 체험과 기술을 통하여 사회 속에서 자립이 가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명	구분	교육대상	숙박	기간	교육내용	참여방법	인원	목표
자연구시	1.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당일 체험	1회 체험	자연과 농업 활동 체험, 수확, 요리	복지관 또는 기관 소속의 그룹별 진행	10~15명	농업과 생활을 경험
	2. 일일 자연구시 체험 프로그램	만성 정신 질환자		1회/매주			10~15명	외부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3. 일반 자연구시	만성 정신 질환자	4박 5일	3회/1년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기관에 소속된 10명 선발		사회생활을 경험하는 과정
	4.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만성 정신 질환자	3주		일상적인 농업 활동 참가 심화 과정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중 선발	2~4명	인턴 과정 준비 기간
	일반 자연구시 심화과정 이수자 중 평가							
5. 자연구시 인턴	일반 자연구시 이수자			3~6 개월	농장에 출퇴근 농업 활동과 지역 활동 참여	회원의 의지, 농장 평가, 전문가의 조언 후 가능	1~3명	평가를 거쳐서 고용을 목표

자료: 행복농장 홈페이지(<http://happyhada.com>), 2018년 5월 15일.

7) 충남광역정신건강센터가 최근에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개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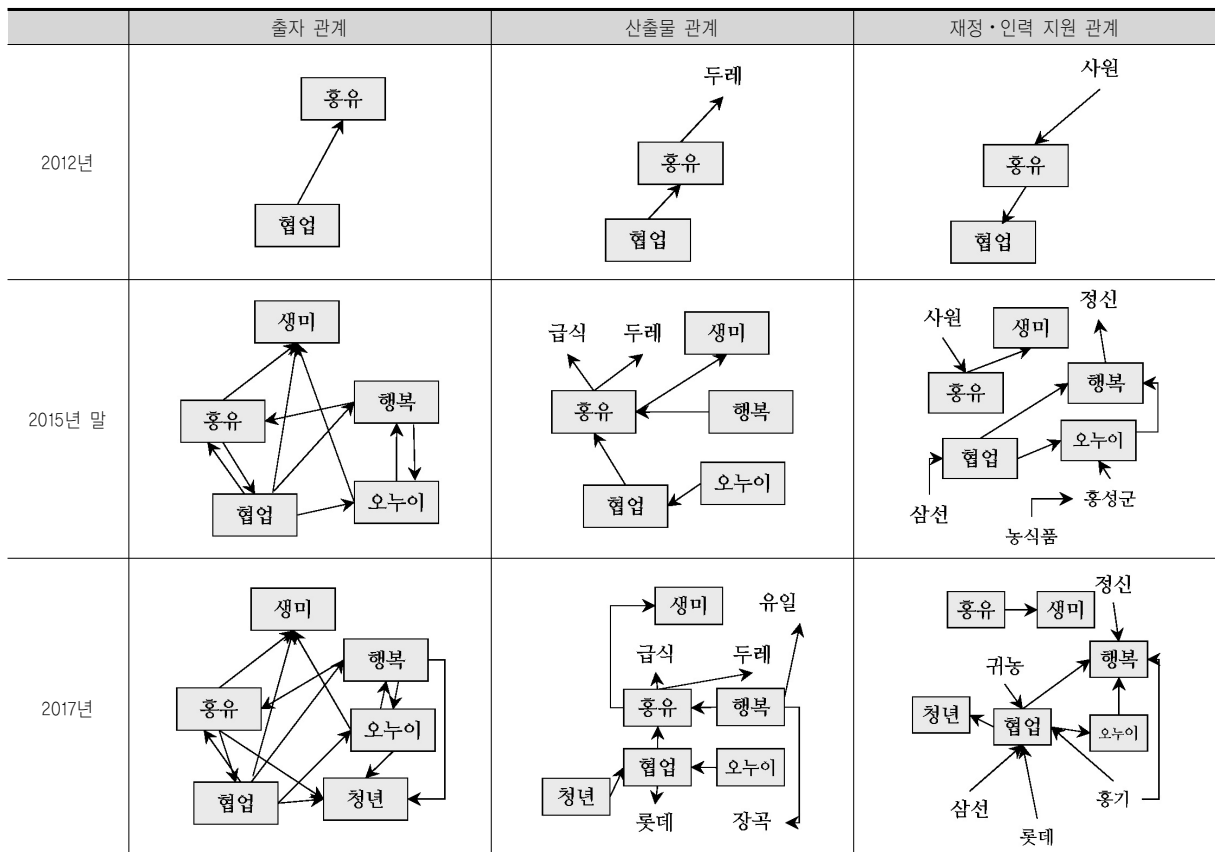
4.3. 지역사회의 변화:

다층적 사회적 경제 연결망 형성

사회적 농장이 ‘사회적’일 수 있는 이유는 원자화된 개별 주체로 운신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사회적 농장들은 언제나 사회 연결망(social network) 안에서 거동하며 스스로 배태된 사회 연결망을 다층적으로 두텁게 재구성한다.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의 몇 년에 걸친 활동은 장곡면 도산리 일대를 중심으로 협력의 연결망을 풍부하게 다층적으로 재구성하였다(그림 2).

살펴볼 첫 번째 층위는 협동하는 조직들의 상호 출자 연결망이다. 장곡면에 젊은협업농장이 자리를 잡기 여러 해 전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이하, ‘홍유’로 약칭)이 조직되어 있었다. 젊

은협업농장은 창립 초기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농장 인프라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젊은협업농장은 ‘홍유’에 출자하여 법인 조합원이 되었다. 이후 행복농장이 설립될 때에는 젊은협업농장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의 대표자(이하, ‘오누이’로 약칭)가 출자하였고, 설립된 행복농장은 ‘홍유’와 ‘오누이’에 출자하였다. 그 무렵에 장곡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해 협동조합 생미식당(이하, ‘생미’로 약칭)을 설립하였는데,⁸⁾ 여기에 ‘홍유’, 젊은협업농장, ‘오누이’가 출자자로 참여했다. 물론, 각각의 협동조합 및 영농조합법인에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은 다수의 개인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에 생겨나는 협동조합 등 조직들의 상호 출자 연결망을 형성한 결과, 개별 조직들의 의사결정은 완전히 고립된 채로 이



〈그림 2〉 장곡면 일대의 지역사회 조직 협력 연결망 구조

주: 급식(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서울 소재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농식품(농림축산식품부), 두레(두레생협), 롯데(롯데슈퍼), 사원(사회적기업 진흥원), 삼선(삼선재단), 생미(생미식당), 오누이(오누이권역협동조합), 유일(홍성군 소재 장애인 요양시설 유일원), 장곡(장곡초등학교), 정신(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청년(청년농부영농조합법인), 홍유(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 협업(젊은협업농장), 흥기(홍성군농업기술센터), 홍성군(홍성군청), 행복(행복농장).
 자료: 김정섭 외(2017: 106)의 내용을 수정.

⁸⁾ 만 5년 동안 운영된 협동조합 생미식당은 2018년 2월말에 해산하였다. 식당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해왔는데, 5년 동안의 임대 기간이 끝나자 재계약 조건으로 건물주가 임대료를 계약 초기(2013년)에 비해 40% 인상된 금액을 요구하였다.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하였다.

루어지지 않으며 지역사회 안에서 정보가 공유되는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령, 2018년 4월에는 젊은협업농장, 행복농장,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각각의 협동조합들이 참석자들에게 2017년 결산자료와 2018년 예산자료를 공개하고, 전년도 사업 성과와 올해 사업계획을 공개하는 자리였다. 개별 조직의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지역사회 안에서 참여자 개인 및 조직들 간의 의사소통 구조를 견고히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촉진한다.

두 번째 층위는 산출물 관계 연결망이다. 산출물은 주로 농산물이다. 예외적으로 행복농장이 돌봄 서비스와 시설이용 서비스(주방)를,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은 시설(숙박시설, 강당, 사무실 등)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조직이 생산하는 농산물은 상당 부분 '홍유'로 집결된다. '홍유'는 주로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와 두레생협연합회에 농산물을 판매한다. 이 농산물은 모두 유기농산물이다. 품질면에서 차별화되어 있고, 최종 매입자 중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홍성군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제도에 의해 거래가 일정 부분 보장되는 상대방이다. 두레생협연합회 또한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출하처다.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 모두 생산한 농산물의 절반 이상을 '홍유'를 통해 출하한다. 공공 부문의 지원이 없거나 적고, 시민사회의 재정적 후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젊은협업농장과 행복농장의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속가능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은 '판로의 안정성'이다. 바로 이 부분을 '홍유'가 중심이 된 산출물 관계 연결망이 보장하는 셈이다. 이는 두 협동조합이 '홍유'의 출하 조합원이기 때문에 권리자 의무다. 이 같은 구조는 '둥지형 시장(nested market)'의 꼴을 조금씩 갖추어 가고 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여러동절할 정도로 다양한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들 시장을 두고 짧은 먹거리 사슬, 농민 시장, 근린 시장, 대안 먹거리 경로 등이라고 불려왔다. 이들 시장의 공통점은 어떤 식으로든 먹거리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간격을 있고, 대형 먹거리 시장을 지배하는 필수통과지점(obligatory passage point)을 우회한다는 것이다. 이들 새롭게 출현하는 시장은 새들의 '둥지'처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 둥지형 시장은 일반적인 먹거리 시장 내부에 자리를 잡지만, 일반 먹거리 시장과는 차별화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유하는 규범 틀 안에 둥지를 틀고, 그 규범 틀의 지지를 받는다. 둘째, 먹거리 제국의 통제 밖에 있는 경로를 따라 먹거리가 흘러갈 수 있게 해 주는 차별화된 인프라 구조 안에 둥지를 틀고, 그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셋째, 무엇보다, 둥지형 시장은 공급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 품질, 기원 생산방법 그리고/또는 사용가능성 측면에서 독

특한 특성이 있다.”(Ploeg, 2018: 207).

셋째는 재정 및 인력 지원 관계의 연결망이다. 재정 지원은 공공 부문으로부터 이들 협동 조직의 연결망에 유입되는데, 지원 받은 하나의 조직이 그 지원 자금을 독자적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협동에 기초한 다양한 정부사업 기획을 통해 역할 분담과 더불어 분배하는 연결망 구조를 지닌다. 특히 근년에는 젊은협업농장이 지원 자금의 배분 및 협동사업 기획 측면에서 연결망의 중심에 있다. 하나의 조직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협동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인력을 다른 조직에 파견해 돕는 인적 협력의 연결망도 활발하게 작동한다.

이 같은 협력 연결망의 구조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의 내용은 '조직'을 기본 단위로 한다. 사실, 조직 수준이 아니라 장곡면 도산리 일대에서의 조직 구성원 개인들의 협력 연결망은 아주 다채롭고 풍부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을 살펴본다.

첫째, 생미식당이 문을 닫은 이후 '홍유', 행복농장, 젊은협업농장, '오누이' 등에 상근하는 이들의 점심식사 문제가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장곡면은 인구 3,000명 남짓한 곳으로, 상권이 크게 쇠퇴한 곳이다.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지에는 음식점이 2곳 있지만, 동시 수용 가능 인원이 20명을 넘지 못할 정도로 비좁다. 그중 한 곳은 날마다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생미식당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생미식당을 해산하고 나자 사람들의 점심식사가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행복농장이 보유한 부역의 공간을 개선했 좌석 수를 늘리고, 도산리 이장 부인의 주도하에 '식당 아닌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이곳에 와서 끼니를 해결하는 인원은 매일 최소 20명을 넘는다. 특별히 외부 방문객이 오는 경우 50명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 단지 점심식사를 해결하려고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인구가 급감한 농촌 면 지역들에서는 음식점이 사라진 것이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주민들이 협력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둘째, 이곳 도산리 일대는 유기농업이 활발히 실천되는 곳이며, 근년의 사회적 농업까지 더하여 도시 지역에서 견학, 체험, 연수, 교육 등의 목적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이 아주 많다. 가령, 2017년 한 해 동안 교육, 체험, 견학의 목적으로 찾아온 젊은협업농장을 찾아 온 방문객만 해도 2,895명이나 된다. 그 중에 수십 명 이상의 인원이 찾아오는 경우 젊은협업농장 단독으로는 그들을 모두 수용해 응대하기가 어려워진다. 가령, 농업체험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수십 명이 찾아올 경우, 젊은협업농장과 협력하는

개인 농장이나 법인 농장에 분산 배치하게 된다. 행복농장의 자 연구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때에도 규모가 작은 행복농장 단독으로는 응대하기 어려우므로 마찬가지로 분산 배치하게 된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날 때 협력하는 협력자 개인 농장들 중 상당수가 젊은협업농장을 거쳐 지역에 정착한 농민들이다.

셋째, 두텁게 형성되기 시작한 협력 연결망은 장곡면 지역사회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에서도 기능을 발휘한다. 2017년부터 2년 동안 장곡면에 하나밖에 없는 소규모 초등학교인 장곡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장곡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는 47명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 학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의 실천들이 시작되었는데, 교실 밖 수업을 여러 가지로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 원예, 목공, 사진, 악기 등을 주제로 한 여러 과목이 편성되었고, 주민들 여럿이 참여해 각기 과목을 담당해 진행하는 '장곡마을학교 고사'로 참여한다. 이 같은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에도 젊은협업농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양한 개인들의 연결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촌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실천에 조직 수준이든 개인 수준이든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고 참여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은 '협동의 경험'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 같은 협동 문화의 내력이나 기원이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려면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인 수준의 협력 활동 가운데 상당수는 농업생산 활동과 유의미한 지역사회 활동을 결합하려는 다기능 농업 실천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런 실천이 기획되고 진행되는 과정에는 집단적 수준의 자원 동원이 반드시 수반된다는 점이다.

5. 결론: 사회적 농업의 출현은 무엇을 뜻하는가

젊은협업농장은 업체류 시설원에 농장을 '교육-농장'으로 재영토화한 사례이며, 행복농장은 허브 및 화훼류 시설원에 농장을 '돌봄-농장'으로 재영토화한 사례다. 이 두 농장이 사회 통합이라는 기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농장'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 이 같은 농장들의 출현을 그저 '선의를 지닌 일부 농업인의 개인적 실천'이라고 규정하고 만다면,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념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사회적 농업의 출현은, 개별 농업 생산단위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 이상의 무게를 지닌다. 두 차원에서 그렇다.

첫째, 이른바 '다기능 농업', '새로운 농민(neo-paysans)'(d'Allans, & Leclair, 2016; Ploeg, 2008; 황수철 외, 2018), '21세기 농민'(Ventura, & Milone, 2007), '새로움의 생산(novelty production)'(Ploeg, Ye, & Schneider, 2012; Ploeg, 2013), '동지형 시장(nested market)'(Ploeg, 2015) 등 먹거리 제국을 탈영토화하는 새로운 농업 주체 담론이 한국의 지형에서 공허한 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 가시화·구체화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둘째, 새로운 농민들이 수행하는 다기능 농업 실천은 동지형 시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필경 농촌 지역사회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협력의 연결망이 그 필요조건이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지역 수준에서 전개되는 사회적 경제 실천과 연관을 맺을 것이다.

'이중의 쥐어짜기(double squeeze)'로 표상되는 먹거리 제국의 현실을 바꾸려는 실천은 "새롭게 구성되는 동지형 시장을 통해 지역경제 안에 강력하게 배태되고 지역경제와 서로 엮여, 아주 다채롭고 서로 협동하는 농민 농장들(peasant farms)로 이루어진 농업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Ploeg, Ye, & Schneider, 2012). 그 같은 운동의 확산은 한국에서도 시작되었고, 이제 고스란히 두 개의 과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새로운 농민의 등장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농민들이 농촌의 사회적·경제적 관계를 다층적인 협동의 연결망으로 재영토화할 전략을 어떻게 형성하고 실천할 것인가?

'새로운 농민'의 개념을 여러 관점에서 조형할 수 있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를 중심에 놓고 본 이 글의 관점을 견지한다면, '새로운 농민'은 우선 협동하는 다기능 농업 실천 주체라고 말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부문의 정책이 다기능 농업 실천 주체를 육성할 역량과 책무를 지닌 중요 행위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농업 및 농촌 정책이 현실에 끼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도 없다.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에서 드러나는 탈영토화를 농업·농촌 정책 영역에서도 시도할 수 있을까? 관료제와 전문가 체제(expert system)의 견고한 결합 상태에 균열을 촉발하는 실천의 적소(niche)를 술한 정책 사업 목록 어딘가에 마련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중앙집권화된 농정 체계를 분권화함으로써, 즉 정책 사업들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중앙정부 정책 사업 지침의 견고함과 경직성을 해체함으로써 다기능 농업 실천의 적소를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은 분명하다. 특히, 사회적 농업이 무엇보다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기반 복지 실천의 결합 형태로서 독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 필연적으로 현장, 아래로부터의 요구, 지방분권 등의 열쇳말을 만나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정섭. (2016). 청년에게 권농(勸農)하려면. 한국농어민신문(7월 19일자).
2. 김정섭, 안석, 이정해, & 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증장기 정책 방향*.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김정섭, 정민철, & 황수철. (2018). 대담: 농촌의 지속가능성, 미래의 농민, 도전해야 할 과제. *마을: 마을, 교육, 마을 교육공동체, 통권*(2), 73-105.
4. 김정섭, 정유리, & 유은영. (2017). *농촌 지역사회 발전 접근방법의 유형과 실천 과제*. 나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5. 농촌진흥청. (2017).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16 농축산물 소득자료집*. 전주: 농촌진흥청.
6. 젊은협업농장 웹사이트(<http://collabo-farm.com/about-young-collabo-farm/>).
7. 정민철. (2014). 협업농장과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웹사이트 게시글(2014. 4. 23).
8. 정은정. (2014). *대한민국 치킨전*. 서울: 따비.
9. 질 들뢰즈, & 펠릭스 가타리. (2001). *천 개의 고원* 김재인 옮김, 서울: 새물결.
10. 칼 폴라니. (2015). *칼 폴라니,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 홍기빈 옮김, 서울: 착한책가게.
11. 행복농장 웹사이트(<http://happyhada.com/>).
12. Barry, B. (2002). Social exclusion, Social Isolation, and the distribution of Income. J. Hills, J. Le Grand and D. Piachard (eds). *Understanding social exclusio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3. Beard, C. (2010). *The experiential learning toolkit: Blending practice with concepts*. London: Kogan Page.
14. Burchardt, T., Le Grand, J., & Piachaud, D. (1999). Social exclusion in Britain 1991-1995. *Social policy and administration*, 33(3), 227-244.
15. D'Allens, G., & Leclair, L. (2016). *Les Néo-Paysans*. Paris: Éditions du Seuil.
16. Hassink, J. (2008). Social farming across Europe: Overview. In F. D. Iacovo, & and D. O'Connor (eds.).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pp. 20-41). Firenze, Italy: ARSIA.
17. Iacovo, F. D., & O'Connor, D.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Italy: ARSIA.
18. Ploeg, J. D. van der. (2008). *The new peasantries: Struggles*

for autonomy and sustainability in an era of empire and globalization. London: Earthscan.

19. Ploeg, J. D. van der. (2013). *Peasants and the art of farming: A Chayanovian Manifesto*. Canada: Fernwood Publishing.
20. Ploeg, J. D. van der. (2015). Newly emerging, nested markets: a theoretical introduction. In P. Hebinck, J. D. van der Ploeg, & S. Schneider (eds.), *Rural development and the construction of new markets* (pp.16-40). London: Routledge.
21. Ploeg, J. D. van der. (2018). *The new peasantries: Rural development in times of globalization*. London: Earthscan.
22. Ploeg, J. D. van der, Ye Jingzhong, & Schneider, S. (2012). Rural development through the construction of new, nested, markets: Comparative perspectives from China, Brazil and the European Union. *The Journal of Peasant Studies*, 39(1), 133-173.
23. Shucksmith, M., & Chapman, P. (1998). Rural development and social exclusion. *Sociologia Ruralis*, 38(2), 225-242.
24. Ventural, F., & Milone, P. (2007). *I Contadini del Terzo Millennio*. Milano, Italy: Franco Aneli.
25. Wiskerke, J. S. C., & Ploeg, J. D. van der (2004). *Seeds of transition: Essays on novelty production, niches and regimes in agriculture*. Assen, Nederland: van Gorcum.

Received 12 August 2018; Revised 29 August 2018; Accepted 10 September 2018



Dr. Jeongseop Kim is a Senior Researcher at the Department of Agricultural and Rural Policy Research in the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South Korea. His fields of interest are rural development issues. Address: (58217) 601, Bitgaram-ro, Naju-si, Jeollanam-do, Republic of Korea. E-mail) jskkjs@krei.re.kr